

農村 郷土마을 景觀의 變化

- 조선 말기부터 올림픽개최 전(1988)까지 -

이시영* · 장민** · 심준영*** · 허준****

*배재대학교 조경디자인학과 · **배재대학교 대학원 · ***전북대학교 녹지조경과 · ****동신대학교 조경학과

A Study on the Change of Landscape in Korean Rural Village

- From Chosun Dyansty to Olympic Games(1988) -

Lee, Shi-Young* · Jang, Min** · Shim, Joon-Young*** · Heo, Jun****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al Design, Paicha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aichai Universty

***Dept. of Forest Landscape Architectur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Dongshin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s at interpreting Korean Rural Landscape by applying the analytical tool thus developed to the lifestyles of ordinary people found in their permanent dwellings both before and after Korea first opened its door to the world in 1896. By so doing, this study hopes to contribute to building a framework with which to understand the tradition of ordinary people by exploring the uniqueness and basic characteristics of Korean Rural Landscape.

This study relies primarily on field studies and publications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the televised documentaries, as well as newspapers and scholastic writings and relating to, the agrarian and residential landscapes changed over time.

In the Vernacular world, the present does not passively inherit the past. Rather, it is re-born each time, reflecting the society and history of the period. It does not change, but is shaped by the necessities of the period. This may be the reason why there are different Korean Rural Landscapes over a rather short period of time. For instance, the pre-modern Korean Rural Landscape tends to be shaped almost entirely by the nature, while the intention of people begins to find much more expressions in the modern Korean Rural Landscape. As the commodities become more readily available to people thanks to industrialization, such ready availability has brought about changes in the materials used in, as well as functions of, Rural Landscape.

Key Words : Rural Landscape, Vernacular Landscape, Rural Village, Traditional Landscape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농촌 경관의 양상을 일반 농촌서민들의 정주공간을 대상으로 살펴보고 1896년 개항 전후를 기준으로 해서 농촌 향토마을경관의 의미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토속 경관을 통해 서민들의 정주공간을 대상으로 서민 생활상의 반영체로서의 한국 토속 경관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했다.

본 연구는 한국화, 풍속화의 그림 자료와 문헌, 신문 및 텔레비전 영상자료를 사용하여 토속적 특징이 나타나는 장면을 주 분석대상으로 하여 그 내용을 해석하였다.

* Corresponding Author : Heo, Jun,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Dongshin University, Geonjei-ro 185, Naju-si, Jeollanam-do 520-714, Korea. Phone : +82-61-330-3345, E-mail : pola777@dsu.kr

한국 내에서 지역별 특징적 토속 경관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토속 경관의 지역 간 차별성이 사라지고 있다. 한국 농촌경관은 시대에 따라 변모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은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농촌 경관이 형성되었으며, 과거 전통적인 농촌경관은 거의 전적으로 자연에 의존 지향적이며, 현대로 진행될수록 사람의 의지가 생활환경에 강하게 표현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서민의 정주환경에서 나타나는 한국의 농촌 경관은 한국전통의 것에서 많이 변화되었지만, 어느 나라의 것보다도 매우 다른 우리만의 고유경관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제어 : 농촌경관, 토속경관, 농촌마을, 전통경관

I. 서론

잭슨(J. B. Jackson, 1991)에 의하면, 토속경관은 그곳의 풍토와 문화에 의존하며, 어느 시대이나 인간이 생활했던 곳이라면 어디든지 존재해 왔다. 환경연구에 있어서 토속 경관은 대부분의 농촌경관 속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농촌경관은 한국 서민들의 기본적인 정주(定住)환경으로서 그들의 생활양식과 농경생활을 바탕으로 자연의 풍토적 특성과 문화적 특성을 잘 반영하여 주고 있다. 한국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많은 변화를 거쳐 왔다. 그와 더불어 대다수 서민들의 생활양식과 주변 환경에도 변화가 많았음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수행되어온 경관연구들을 살펴보면, 근대 이후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경관의 시대별 구분을 정치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1945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의 식민지기, 1960년 중반까지 혼란과 복구기, 1980년 중반까지 고도성장을 통한 현대화기 그리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를 안정기로 구분하고 있으며, 도시경관 변화의 역사를 연구한다는 관점에서 근대 전기(개항~일제), 근대 이후(해방~현재)의 단계로 나누기도 한다(이선화의 2인, 1998). 이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토속경관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근대 이전의 시기와 근대 이후 개화로부터 일제 강점기까지(1876~1945), 6.25전쟁과 혼란기(1946~1971), 새마을 운동 이후부터 올림픽 전까지(1972~1988년)로 시대적 구분에 따라 분석하면서, 양대 구분으로서 한국의 농촌경관에 있어 가장 큰 변화를 준 농촌 근대화, 즉 새마을 운동이 시행된 시점 전·후를 중심으로 하여 농촌 향토마을경관의 변천과정을 비교·고찰하였다.

한국의 1, 2, 3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농촌에도 새로운 개혁의 근대화 물결이 일게 하였다(이순적, 1976). 특히 1971년 새마을 운동은 농촌의 생활환경을 크게 변모시켰다. 이 시기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은, 전통 농촌경관이 자생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1970년대 새마을 운동 이전까지이며, 새마을 운동시작 후 농촌취락 개선사업으로 토속경관에 크게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사회여건의 변화에 반응하는 토속경관의 관찰이 용이하리라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시대생활상의 반영체로써 한국 농촌 경관

의 양상을 일반 농촌서민들의 정주공간을 대상으로 살펴보아, 한국 토속 경관의 특성을 논하고, 그 본질을 파악함으로써 농촌마을을 경관으로서 문화 환경을 이해하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한국에서의 토속 경관의 시대적 고찰을 하는 것이며, 근대 이전과 근대 이후 개항부터 1988년까지의 토속 경관을 고찰하였다. 토속 경관은 일반적인 서민의 삶을 담고 있다는 점과 한 시대적, 일시적이라는 특성상 남아있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는 성격이 있다. 따라서 한국화, 풍속화의 그림 자료와 문헌, 1920년대부터 1988년까지의 동아일보와 MBC 제작의 “그때를 아십니까”와 KBS 제작의 “영상실록”의 영상자료를 연구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서민의 생활을 담은 영상 장면과 사진 중에서 토속적 특징이 나타나는 장면을 주 분석대상으로 하여 그 내용을 해석하였다. 신문자료는 신문이라는 공공의 매체로서의 특징상 사진과 더불어 기사 내용에 초점을 두어 시대상황 파악에 중점을 두었다. 연구대상으로 전통사회와 산업의 기반이 동일한 농촌사회를 중심으로 하였고, 도시주거를 참고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근대 이전의 토속 경관을 살펴보기 위하여 국가 지정 민속마을을 대상으로 그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이것은 옛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고 마을의 생명이 우리의 정서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널리 인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근대 이후의 토속 경관은 근대 이전의 민속마을과 관련하여 그 변화의 상태를 살펴본다는 관점에서 농촌경관을 주 대상으로 하나, 이와 병행하여 산업화로 말미암아 농촌의 도시화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시점에서 서민들의 집단 생활상을 통하여 시대상을 엿 볼 수 있는 주거경관을 포함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근대 이후 마을 경관은 근대 이전의 시기와는 달리 짧은 시간동안 급격한 사회적 변혁으로 인해 많은 물리적인 요소들의 변화를 거듭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적 모습들을 현시점에서 단선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 바, 시대별로 고찰하여 당시의 토속 경관을 통해 그 시대의 생활상과 사회상을 살펴본 뒤, 이를 종합하여 유형을 분석하였다.

Ⅲ. 근대 이전(조선 말기~개항 이전까지) 마을 경관의 특성

근대 이전의 한국은 관념의 사회였다. 자연과학과 논리적인 사고에 앞서서 동신신앙과 유교의 명분이 앞서며, 계급사회에서 나오는 지배계급의 우월성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사회였던 것이다. 이에 개인의 개성이나 취향보다 마을 전체의 안녕과 대대로 이어오는 문중의 관습이 더 중요시되어, 마을을 앉힐 때에도 풍수지리와 음양사상에 의하며, 전체의 안녕을 위해 개인이 나무 한 그루, 땅 한 삽을 마음대로 다룰 수 없는 사회이다. 그래서 토속 경관에서도 한 가정, 한 가정의 특색보다는 마을 전체에서 볼 수 있는 분위기와 특색, 특히 풍수지리적 요소와 마을 공간의 배치, 동신사상에서 유래된 경관을 보게 되는 것이다. 자연환경적 이유에서 북풍을 막고 햇볕을 집안으로 들이고자 산을 등지기도 하지만 배산임수의 풍수지리적 사고에도 기인한다. 항상 마을은 산을 등지고 앞으로 들과 물을 바라보고 있다.

근대 이전의 토속 경관은 지역적 특성의 반영이다. 각 마을 단위의 공간마다 그 나름의 고유한 경관적 특성을 가지고 여타 마을과 뚜렷한 내면적 차이점과 그로 인한 경관의 모습을 달리 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들만의 재료, 풍토적 여건, 그리고 지역적 마을풍습과 사회 관념은 독특한 경관을 유지시키며, 그들의 생활과 사회상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토속 경관을 형성시키고 있다.

근대 조선의 경관은 커다란 변화 없이 동신신앙에 의한 마을 진입부의 성황당이나 풍수지리에 의한 배치 등의 요소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다. 한편, 각 지역별 특색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지만, 또한 전반적으로 공통되게 나타나는 특성도 보여주고 있다. 우리 선조들의 내면에 뿌리 깊숙히 안착되어 있는 풍수지리 사상과 자연에 대한 친화사상으로 인한 배치, 실생활 위주의 기능주의와 농경문화의 바탕은 근대 이전 토속경관 특성을 보여준다.

짧지 않은 시간의 역사와, 조선 후기 근대로 넘어오는 순간까지 실학사상의 대두와 상업의 발달 등의 사회변화를 꺾지만 이러한 변화가 서민의 생활에까지 커다란 영향을 주지 못했으며, 토속 경관에도 변화를 주지 못했다. 이는 우리의 토속 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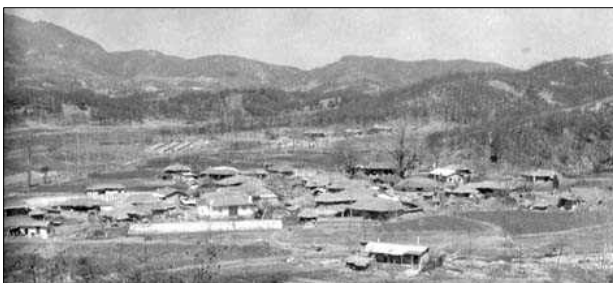


그림 1. 마을경관(시흥)

은 우리 고유의 모습과 일반서민의 생활사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형태로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근대 이전의 토속 경관은 토착신앙의 결과로 관념적 경관의 특성과 지역적 특성을 살린 마을마다의 고유경관을 보지(保持)하고 있고, 비 물리적이라는 '경관'의 특성 때문에 건축이나 공예와 같은 토속에 비해 역사의 영향을 적게 겪었고, 그로 인해 우리 고유의 전형적 모습을 건축이나 공예보다 더 잘 유지하고 있었다.

Ⅳ. 근대 이후(개항부터 올림픽개최 전까지) 마을 경관의 특성

1. 새마을 운동을 기점으로 한 경관 구분

1) 새마을 운동 전

근대 이후 한국사회는 내부 환경보다 외부 힘에 의한 변화를 강하게 겪었다는 특징이 있다. 개항에서부터 현재까지도 외세에 의한 변화가 많은 사회이다. 이런 특징은 서민들의 생활에서도 뚜렷하게 보이며 서민생활의 투영체인 토속 경관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난다.

개항 직후 조선의 각 지역에서 중심이 되는 거리와 주거지는 일본인들이 잠식했고, 그로 인해 경관도 일본풍으로 변화되었다. 양옥이 전래되고 공공건물에서 양식, 일식의 구조를 띄게 되었다. 1931년 관(官)에서는 초가를 와가나 함석지붕으로 고치기를 시도하였고, 1935년에도 불량주거 개선안을 입안하였다. 기와지붕과 목조벽의 이층집이 들어섰다. 그러나 변화가를 조금 벗어난 농촌은 각 시의 중심거리와 같은 변화는 없었다. 해방 후 민족의 비극적인 6.25 동란과 휴전, 보릿고개 등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기로 피난민의 도래(到來)와 불량주택의 발생, 전쟁의 피해와 복구 등 많은 사건으로 외부의 영향력에서 조금은 상관없는 듯 보이던 농가와 농촌마을도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1950년 전쟁의 발발로 인해 남쪽으로 피난 간 상황에서 그 환경 특유의 토속적 거주형태가 나타난다. 일반 서민들의 피난민촌 주거는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통나무 몇 개와 천막 또는 가마니를 천장과 벽 삼아 생활을 하였다. 집의 필요성과 이를 구성하기 위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 그것이 집을 구성하는 전부로서 가장 기본적인 외부로의 차단만이 목적이었다. 표현상 판자집일 뿐이고, 미군부대와 부두에서 나온 종이박스로 집을 만든 것으로 1945년 해방 이후 서울 남산기슭에 생성된 해방촌을 남으로 옮겨다 놓은 것 그 자체였다¹⁾.

1953년 전쟁이 끝난 뒤 경제사정과 정치상황은 평탄치 못했고, 이러한 사건은 서민들에게로 영향을 준다. 특히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전쟁이 끝나도 생활은 달라질 것이 없었다. 전후 복구 사업은 거의 대부분 미국을 비롯한 UN의 원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²⁾. 1954년의 서울 근교만 해도 초가가 있고 집 앞으로 경작지가 있었으며, 사람들의 모습이 좀 달라졌고, 전봇대가 생겼을 뿐 경관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달라짐이 없었다. 이때까지는 우리 스스로 행한 변화가 아니라 외부 힘에 의한 변화이고, 힘의 흐름에 휩쓸려 생긴 변화였다. 사람들의 생활은 더욱 피폐해졌으며, 먹을 것이 없던 보릿고개에도 넉넉하기만 하던 인심은 사라졌고, 환경은 파괴되었다. 또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진보되는 변화가 아닌 퇴보하는 움직임이었다는 사실이다.

2) 새마을 운동 후

퇴보하던 발걸음은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면서 농촌의 모습도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주택을 중심으로 자연과 산을 배후로 삼고 앞에는 경작지를 바라보고 있지만, 농가경관의 주체가 되는 주거의 개량으로 습관처럼 익숙한 우리의 토속경관이 변하게 되었다. 1970년대는 새마을 사업이 한창으로 전통적인 경관이 사라지고 초가를 대신해서 슬레이트 지붕이 나타났으며, 민속마을에서 보았던 토속적인 경관으로서 굽이져 넘실넘실 물이 흐르는 듯 공간에 리듬감을 주는 길과 지역적 재료로 만들어진 담들의 모습들은 사라지고, 근대화의 영향으로 시멘트 블록으로, 길은 확장된 직선형으로 변천하면서 새로운 농촌 토속 경관모습이 나타났다.

새마을 운동은 주거문화에 있어서 일대 변혁, 혁명과도 같은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새마을 운동과 더불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실행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력을 향상시키고 현재의 밑거름을 쌓았고, 이것은 생활의 변화, 주거문화에 변화를 일으켰고 이것이 확장되어 마을과 도시의 모습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였다. 1973년 속초시의 지붕개량 사업계획서에는 농어촌 환경개선의 대표적 사업으로 지붕개량사업을 꼽고 있으며, 1978년 서울특별시의 새마을 안길사업 보고서에서는 80년대의 마을상에 '넓고 질서 있게 배치된 마을 안길'을 들고 있다. 위의 두 보고를 통해 볼 때 당시 주거공간에서 중요한 현안은 지붕과 길이었으며, 이것은 지붕의 내구성과 문명이기의 도입과 쾌적한 환경에 대한 바람의 표현이다.

이 중 특이한 것은 경기도의 취락구조개선 사업이다. 경기도는 안길의 개량과 함께 조경사업에 큰 비중을 두고 있어서, 진입로, 마을 주변, 집주변에 식재할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것은 최대한 농촌의 정취를 살리는데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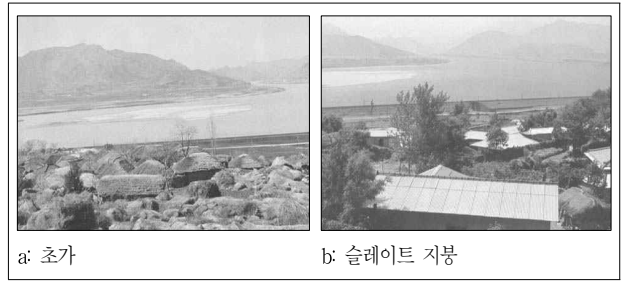


그림 3. 새마을 운동 후 농촌의 변화양상

목적을 두고 있어 지붕과 담, 길 등에만 신경 쓰는 당시의 시대 분위기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1980년대에 들어 앞서 제시된 '80년대 마을 상'의 실현으로 농촌의 경관이 변모하였다. 울타리와 사립문은 없어지고 담과 대문으로 바뀌었으며, 70년대 새마을 운동 초기에 흙 벽돌담에 지붕만 슬레이트였던 것이 슬라브 지붕의 양육으로 바뀌었다³⁾. 이러한 변화는 1978년 정부가 추진한 취락구조 개선 및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힘입은 바 크다. 울타리와 사립문 대신에 담과 주택이 생김으로 토담을 사이에 두고 음식을 나눠먹던 인정은 보기 힘들어졌으며⁴⁾, 집 구조 자체가 방문만 열면 바로 이웃과 대할 수 있던 재래식 가옥과는 판이하게 달라 이웃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쉽지 않아졌다⁵⁾. 75년 중반 농촌의 빈부 격차를 논할 때 지붕 위로 뺀 텔레비전 안테나가 거론되었는데⁶⁾, 1985년경에는 텔레비전의 대량 보급으로 농촌의 전통풍습이 깨지고, 새로운 풍속과 의식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저녁식사를 끝낸 겨울이면 비교적 큰집의 사랑으로 놀음을 가거나 여럿이 모여 새끼나 가마니를 짜고, 아낙네들은 이웃집에 시집 온 새댁과의 친교를 위해 모이던 '마실' 풍습이 사라졌다고 한다⁷⁾.

새로운 농촌 토속 경관의 특징 중 하나로 알록달록한 지붕이 있다. 파이란 논과 울창한 숲을 이루는 뒷동산의 사이에 빨강고 파란 지붕이 눈에 띈다. 이것은 지붕개량 사업 시행 시 환경개선 효과의 증대를 위해 개량자재의 개발에 노력하였는데, 이 개량자재가 착색기와와 생산이었다. 또, 자연미를 살리는 도색을 위해 은근하고 밝은 색을 권장하고 있었던 까닭이다(속초시, 1973). 전통적인 우리 색깔은 다정다감하고 우아하며 검소, 소박한 무채색을 선호하며, 가옥도 이 같은 경향을 반영, 우리의 자연경관과 잘 어울리는 백색, 흑색, 회색, 암적색이 주조였다. 이와 같은 취향은 건축 재료를 주변 환경에서 구하는 토속 건축으로 재료색이 자연환경과 자연스럽게 조화되어 왔으나, 새마을 운동의 악영향으로 청, 적, 녹, 황 등 인공 페인트로 농어촌의 색깔이 왜곡된 결과이다⁸⁾.

1980년대 후반, 올림픽의 개최결과와 함께 또 한 번의 사회, 문화적 전환점이 찾아오게 되었다. 우리의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겨나며, 건축분야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이 들어오고 우리 건축에 대한 지역성이나 풍토성이 거론되게 되었다(이규복, 1987). 이런 시점에서 각 지역에 그 유형이 남아 있거나 그 보존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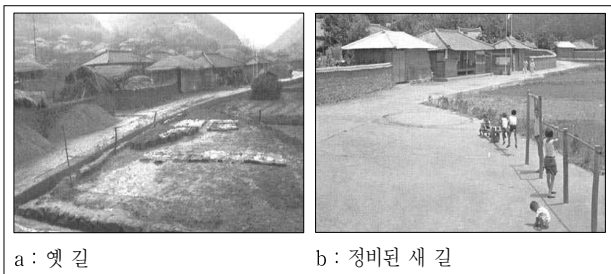


그림 2. 마을길의 변화 (화순군)



그림 4. 새마을 운동후 농촌의 변화양상
(자료 : 내무부 1978, 서울신문 1985)

가 있는 지역들을 민속마을로 선정하게 되었다. 계속해서 사라지는 우리의 토속적인 것을 다시금 복원하려는 노력들이 생기며, 현재까지 농촌마을의 경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신도시를 개발한다는 정부의 발표와 함께 근교에 위치한 깔끔히 정리된 농촌들은 그 후 신도시 건설이라는 새로운 환경과 부딪쳐 지금의 일산, 분당의 모습을 갖게 된다. 서울을 중심으로 고층의 주거지가 사방으로 확대되어갔다. 경작지 한복판에 고층아파트가 세워졌으며, 고층아파트는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에서도 흔한 경관이 되었다. 이제 아파트는 전통마을에서 발전된 단독주택지보다 친숙하고, 흔한,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대표하는 모습이 되고 있다. 주요 시대별로 마을 경관이 변화한 정도를 공간적 범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근대 이전에는 자연 친화적 경관이었으며, 일제강점기에는 집의 구조가 일본식이나 이층으로 바뀌면서 그에 면한 길의 경관도 변화되었다. 6·25 전쟁은 한 사람의 방에서부터 마을, 전

국도 전체를 뒤흔들며 3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보여주며, 한 나라의 구석구석의 경관까지 변화시켰다. 새마을 운동은 근면, 자조, 협동을 기치로 한 마을 단위의 취락 개선 사업으로, 각 가옥의 구조, 마을길의 경관, 공동체 생활모습에 영향을 주었다. 그 후, 80년대에는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 게임 개최 등으로 국제화 시기를 맞이하여 사회 전반적 분위기가 빠르게 변하는 시기로, 주로 아파트에 의해 경관의 변화가 주도되었다. 한편, 90년대 이후에 들어와 주택 200만호 건설사업과 함께 아파트가 주된 주거공간이 되며 농촌지역에 까지 폭넓게 보급되었다. 농촌지역의 경우, 예전에 초가 혹은 2층 슬라브 양옥이던 곳에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논 한가운데 10층 이상의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는, 우리의 전통적인 것과는 상이하고 어색한 경관을 연출하면서 또한 우리만의 독특한 경관을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이에 관한 논란 속에 농촌마을의 새로운 사회현상을 야기시키고 있다. 1990년대 후반 들어 새로운 풍속으로써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도시생활에 지친 사람들이 문화마을이나 전원주택을 분양받아 웰빙과 로하스 등의 추구를 통하여 향토경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2. 농촌경관의 공간 유형별 특성

1) 주거지와 뒷동산의 경관

마을의 구석구석이 다 바뀌어도 바뀌지 않았던 것이 주거지와 마을과의 배치관계이다. 산업화로 인하여 세상이 바뀌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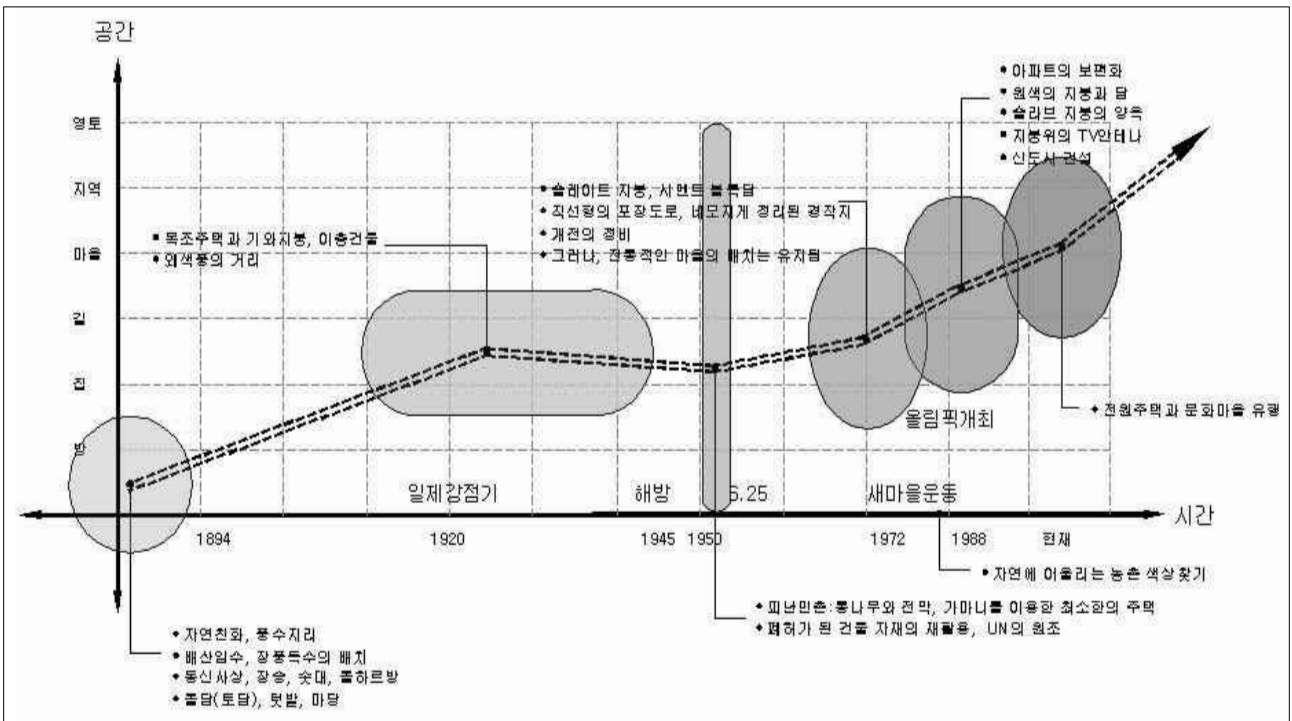


그림 5. 시대별 마을경관변화

개개의 집은 쉽게 바뀔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마을과 뒷동산과의 배치관계는 쉽사리 바뀔 수 없었다. 예전 사람의 스케일로는 주거지와 뒷동산과의 배치관계를 변형시킬 만한 물리적 변화는 일어나기 어렵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과학과 산업의 힘으로 원초적인 지형의 변화를 일으켜 주거지를 만들게 되었다. 신도시 건설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경우, 전통적인 뒷동산과 마을과의 관계는 없어지고, 넓게 펼쳐진 대지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게 된다.

2) 마을 진입공간
주거공간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도 넓고 반듯한 길로 바뀌었

으며, 흔히 보이던 성황당은 이제는 그 공간에 어울리지 않으며 사람들의 믿는 마음 또한 변하여 그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하지만 장승이나 솟대 등의 신앙은 아직도 그 맥(脈)을 유지하고 있기도 하여, 진입로의 경관에 한몫을 하고 있다. 근대 이후 우리의 답은 토담이나 자연적으로 쌓은 돌담이 아닌 공장에서 일률적으로 뽑아 나온 블록과 벽돌로 쌓은 담이 보편화되었다. 더불어 주거환경 정비 사업으로 마을 내부 길도 생활의 편리를 위해 곧게 펴졌다. 토속 경관은 지역적 특색과 우리 고유한 모습은 약화되었지만, 주거환경이 위생적으로 개선되고 기계를 이용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어 생활이 편리해졌다. 이제는 과거 토담이나 돌담보다 더욱 친숙한 경관으로 자리하고 있다.

표 1. 새마을 운동전 · 후 한국의 농촌마을경관

		새마을 운동 전(1876~1971)	
		개화와 일제강점기	6·25 전쟁과 혼란기
영상실록상의 사회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15 광복(45.8.15) · 일본군 철수시작(45.9.10) · 경성을 서울특별자유시로 개칭(45.9.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재건 사업(1951) · 주택공급을 위한 건축사업(1953) · UN재건단의 부흥주택(1955) · 최초 아파트(종암동, 1957) · 이농인구 급증(1969) · 잠실지구 개발 착공(1971)
신문 및 문헌상의 기록적 농촌 변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문제(동아, 22.9.5) · 화전경관과 화전민 주거(동아, 28.6.22) · 초기개발, 전부 와가로(동아, 31.5.23) · 불량주택개선(동아, 35.10.18) · 주택개선안(내무국 입안, 동아, 35.11.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혼란기로 농촌문제에 대한 여력이 없었음 · 방부제 개발로 초가지붕 수명 연장(65.3.21) · 아직 30만호 모자라(조선, 65.5.27) · 보리고개 맞는 3월의 농촌(동아, 67.3.9.) · 고향을 등지는 사람들(이농막아야, 동아 67.9.29)
농촌 마을 경관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조건물의 기와지붕 · 주택규모제한 철폐, 왜색풍의 경관 · 농촌에서는 큰 변화 없음 · 초가, 기와나 합석지붕으로 교체 시도 · 불량주택 개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한의 주거, 극한의 주거 · 해방촌 형성, 6·25 발발로 피난민촌 형성(1950~53년) → 주택난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주택건설 · 급속한 경제 성장에도 이농인구 증가 · 인구부산을 위해 잠실지구 개발, 후에 투기 붐
	종합	일제시대에는 왜색풍의 건물이 등장, 전쟁 때에는 최소한의 주거인 피난민촌이 시대상을 대변하였다. 휴전 후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도 부족한 주택난을 위한 건설사업은 계속 되었지만, 이농인구의 도시유입으로 주택난은 계속되었다. 한편, 정부에서는 유엔 재건단에 의한 부흥주택과 1962년 마포에 최초의 현대식 고층아파트들의 주택건설을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도시에서는 새로운 주거가 등장하고 있었지만 1965년까지도 농촌에서는 초가지붕을 위한 방부제의 개발이 연 40억 원을 절약한다는 내용이 신문기사화할 만큼 초가가 일반적이었고, 이 모습은 72년 새마을 운동이 범국민적으로 확대될 때까지도 변함이 없었다.	
		새마을 운동 후(1972~현재)	
		새마을 운동 후 고도성장기	현대화기
영상실록상의 사회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마을 운동 범국민적 확대(1972) · 식량난 여전(1973) · 잠실 시영아파트 준공(19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강 종합개발사업 완성(1986) · 올림픽 게임 개막(1988)
신문 및 문헌상의 기록적 농촌 변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촌으로 변한 피난민촌(동아, 77.1.5) · 관(官)주도의 소도읍가꾸기(동아, 77.2.7) · 농촌 취락구조(가옥개선, 조선, 77.12.20) · 본격화하는 농촌근대화(신아, 78.5.19) · 도시문화에 명드는 농촌(신동아, 79.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시대(친교의 광장 마실풍습 사라져, 서울, 85.1.22) · 굳게 닫히는 농가대문(농촌 새풍속, 서울, 85.7.23) · 빈집 늘어나는 농촌(이농현상, 동아, 87.1.20) · 우리 정서 맞는 색상 살리기(농어촌주택, 동아, 91.7.3) · 흙에 사시렵니까(전원-문화마을로 오세요, 98.1.26)
농촌 마을 경관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슬라브 주택 · 마을 내에서 생산된 블록 담 · '72년 새마을 운동 확대 · 마을 환경개선사업, 소득증대사업 · 도시 새마을 운동 전개 → 급격하고 획일화된 농촌개선사업 → 주거 양식의 변화, 도시문화 침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 공산품의 산업화된 버나클러 → 투시형 담장, 양육지붕 · 주택공급을 위한 신도시 건설 · 아시안 게임, 올림픽 게임 개최 등 국제화 시기 · 더욱 심화되는 농촌 전통문화 파괴 · 다진 흙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엿보임
	종합	10여 년의 지속적인 새마을 운동은 농촌의 초가를 슬라브 양육에 대문은 물론 담장도 블록으로 높이 쌓아 올려 도시주택을 무색케 하였다. 소득증대 사업으로 생활형편이 나아지면서 주택구조가 바뀌고, 도시문화에 의해 농촌이 명들면서 물질적인 경관은 좋아졌지만 전통의 인정과 풍습이 사라지게 되었다. 넓은 안길, 조경된 마을, 문화주택 등의 개량된 마을을 80년대 마을상으로 꼽고 있다. 이것은 초가에서 찾을 수 없는 지붕의 내구성, 문명 이기의 도입과 쾌적한 환경에 대한 바람으로 나타났다. 새마을 운동으로 우리 전통마을 모습을 커다란 변혁이 시작 되었으며, 1975년 이후, 아파트는 보편적인 주거형태가 되었고, 이제는 농촌경관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는 주거가 되었다.	

3) 주거지 경관

근대 이후의 주거지 경관은 특정 시기별로 다양한 경관을 보여주고 있다. 개항 이후, 일제 강점기의 왜색풍의 경관과 6·25와 재건기, 새마을 운동기의 경관, 그 후 올림픽 전까지 서민들의 주거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처럼 근대 이전의 주거지 경관으로는 상류주거인 기와주택과 서민주택인 초가로만 대별되었으나, 근대 이후에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유형의 주거가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를 구분하여 보면 초가, 판자촌, 슬라브지붕의 개량형 주거, 아파트 주거군이 형성되었다. 초가는 고전적인 우리의 주거양식으로서 농사를 짓는 서민들에게 가장 흔하고 구하기 쉽고, 다루기 쉬운 짚을 재료로 이용하는 보편적인 주거양식이었으며, 판자촌은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사는 어느 곳이나 존재하는 주거형으로서 서민생활의 일부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슬라브 지붕의 개량주거는 새마을 운동의 상징과 같은 것으로서 새마을 사업에 의해 초가로 대표되던 우리의 농촌 주거경관은 슬라브 지붕과 슬레이트 혹은 양옥으로 바뀌어 우리의 주변환경과 잘 어울리는 자연색이 사라지게 되었다. 현대 한국의 대표적인 주거양식이라면 아파트를 꼽을 만큼 고층의 아파트는 보편화되어 있다. 도심 한가운데서부터 외곽의 주거 전용의 새로운 도시, 근교농촌의 경작지 한가운데까지도 아파트는 그 모습을 드러내며, 현대 서민들의 대표적 주거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다.

4) 경작지 경관

농촌공간은 농지의 조성관리·영농이라고 하는 농업 생산활동을 포함한 인간의 각종 활동이 자연을 대상으로 계속되는 장소이며, 자연과의 공존을 기본으로 하는 생활장소라 할 수 있다. 최근까지 농촌공간에서는 이러한 역할이 이루어져 왔으나, 시대변화에 따라 농지와 자연의 공존 관계가 점차 감소해가는 경향이 있다(김기성, 1997).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정주공간으로서 역사적 시간을 통하여 식량생산에만 치중했던 농촌에도 산업화의 발전을 통하여 물질적 여유가 있는 생활로의 많은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새마을 운동은 구불거리는 논은 반듯하게 정리되어 농업의 기계화를 가능하게 하였고, 소를 이용하던 영농은 각종 기계가 대신하였다. 하지만, 자연환경과 농경생활의 경관은 지금까지도 가까이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전통적인 토속 경관이다.

5) 그 외의 공간

마을 내에서 사회적 공간의 역할을 하던 장소로는 우물가나 공동의 빨래터, 방앗간, 마을 중앙의 터 등이 있었다. 이곳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얼굴을 마주하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또 명절과 마을의 제사가 있을 때면 함께 모여 준비하고 의논하던 그 장(場)으로써 마련된 곳이다. 이런 장소에서 일어나던 행태와 그로부터 나온 우리의 토속 경관은 주거지의 변화와 함께 사라져서, 이제는 만나기 어려운 경관이 되었다. 각종 문명의

이기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사고를 바꾸어 놓았고, 그로 인해 마을 신앙이 약해졌으며, 마을 제사 또한 예전과 같지 않아졌다. 더불어 그 공간의 쓰임도 중요성이 덜해졌음은 말할 필요 없는 사실이다. 빨래터에 모이던 사람들도 각자 집에서 세탁기를 돌리고 있고, 방앗간에서 찢던 곡식은 상품으로 마련되어 나오고 있다. 이처럼 현대사회는 우리의 토속적인 풍습과 정서를 메마르게 하였으며, 개인행동이 생활의 중심이 됨으로써 공동체적인 사회적 공간의 기능을 약화시키며 새로운 풍속도를 만들고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전통의 한 부분이면서 그 동안 외면되어온, 그렇지만 민족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서민들의 모습과 그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한국의 농촌마을 경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근대를 기점으로 전·후 일반서민들의 정주공간을 대상으로 한국의 토속 경관의 의미를 해석하고, 공간유형의 분류와 시대적 변환점을 중심으로 기술적 해석 비평을 적용하였다. 토속 경관을 통해 일반서민의 사회상과 생활상을 해석하기 위한 본 연구의 목적은, 서민들의 정주공간을 대상으로 근대 전·후의 시대적 사회상과 서민 생활상의 반영체로서의 한국 토속 경관의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농촌 향토마을 경관의 변화를 본다면,

첫째, 한국 내에서 지역별 특징적 토속 경관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토속 경관의 지역 간 차별성이 사라지고 있다.

둘째, 근대 이전의 토속경관 모습은 우리의 정신적, 사상적 배경에 많은 지배를 받고 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나, 산업화 이후 유형적, 물질적인 요소에 의한 영향을 더 강하게 받고 있다.

셋째, 근대 이전에서는 토속경관의 주체인 일반 서민들에 의해 근본적인 형성이 이루어졌으나, 이후에 들어와 주체는 변하지 않았지만, 상당부분이 외부적인 힘으로서 관(官)주도에 의해서 물리적인 환경이 변화되며 토속 경관이 형성되어지고 있다.

넷째, 근대 이전의 토속 경관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나, 그 변화의 폭이 적으며 예전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근대 이후에 들어와서는 짧은 시간동안 급격한 변화를 거치며 서민들의 생활상이 직접적으로 많은 변화를 수용하여 변화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재료와 표현에 있어서 가장 현저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근대 이후에 들어와서는 자연재료들이 보다 이용하기 어려워지고 있고, 싸고 저렴하게 얻을 수 있는 일반 공산품이 가장 손쉬운 형태로 얻어지게 되었다. 표현방법에 있어서도 이러한 재료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농촌경관은 시대에 따라

변모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은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농촌 경관이 형성되었으며, 과거 전통적인 농촌경관은 거의 전적으로 자연에 의존 지향적이며, 현대로 진행될수록 사람의 의지가 생활환경에 강하게 표현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서민의 정주환경에서 나타나는 한국의 농촌 경관은 한국전통의 것에서 많이 변화되었지만, 어느 나라의 것보다도 매우 다른 우리만의 고유경관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시대별 경관변화상을 토대로 차후 연구에서는 보다 심층적인 사례를 통해 비교분석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실제로 우리와 가장 밀접하지만 잊혀져가고 있는 농촌경관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금 조명하는 기회가 되고자 하며, 궁극적으로 우리가 찾아서 현대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농촌경관 양식의 발견과 새로운 창조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야 하겠다.

주 1) 『그때를 아십니까』, ‘아직도 잊지 못할 판자촌이야’ 중에서 인터뷰 발췌, MBC 제작
 주 2) 『영상실록』 중에서 ‘1953년’
 주 3) 1985년 7월 23일 서울신문
 주 4) 김춘복, 「신동아」, 1979년 8월호 pp.202-205 ‘도시문화에 면드는 농촌’ 중에서 발췌

주 5) 동아일보, 1987년 1월 21일
 주 6) 동아일보, 1975년 6월 23일 중 발췌
 주 7) 서울신문, 1985년 1월 22일 발췌
 주 8) 중앙일보, 1991년 7월 3일

인용문헌

1. 김기성(1997). 농촌경관의 형성 및 보전. 한국농공학회지. 39(3): 11.
2. 김춘복(1979). 도시문화에 면드는 농촌. 신동아. 8월호: 202-205
3. 김한배(1994). 한국도시경관의 변천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8.
4. 이규복(1987). 한국 건축의 한국성에 대한 하나의 가정. 공간. p.3.
5. 이선화, 김유일, 정기호(1998). 서울 가로경관의 시대적 변천. 디자인연구. 경희대 디자인연구원. 1(1): 29.
6. 이순적(1976). 한국농촌경관의 시각분석 및 개선방안.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3.
7. 윤일주(1988). 한국근대 건축사 연구. 기문당. pp.21-22.
8. 속초시(1973). 73년도 지방개발사업계획. pp.3-7.
9. 東桶口 護(Mamoru Tohiguchi)(1996). 木造建築の伝統的设计システムに関する研究. 日本建築學會計劃論文集 第488号: 177-185.
10. 佐野吉彦(1986). 建築を語る本から字ぶ - ウアナキユラ・ブツクスのゆくえ. 建築雑誌 101(1249): 67-69.
11. Benevolo, E.(1980). The History of City. Massachusetts: M.I.T. Press.
12. Jackson, J. B.(1991). Discovering the Vernacular Landscap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Ltd., p.149.
13. Knapp, R. G. China's Vernacular Architecture.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원고접수: 2010년 11월 2일
 최종수정본 접수: 2010년 12월 15일
 3인 익명 심사필, 1인 영문 abstract 교정필